

탄핵·특검 카드...민주 강경모드 전환

채상병 사건 등 3건 국조요구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패스트트랙 대여 공세 수위 정기국회 전운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 카드를 내걸고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및 은폐 의혹,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의혹, 오승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의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데 이어, 국정조사 카드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또 '쌍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에 부의돼 '언제든 처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강조하

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관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탄핵 소추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기류가 감지된다.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하거나 임명해 실정법 위반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의총에서 탄핵 소추안 발의가 결정되면 9일 본회의의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한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론도 흘러나온다.

지난 2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통과를 주도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당해 체면을 구긴 만큼 법률에 따른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탄핵 문제가 한 장관의 입지 구축에 긍정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에 대해선 언론 탄압이 너무 심하게 찬성의 견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장관에 대해선 본인 생각과는 다르게 관심이 없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 탄핵은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도 행정부에 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징계"라며 "막무가내가 아니라 탄핵 사유가 분명히 확인된 정부 위원들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석수만 믿고 탄핵 소추안을 남발한다면 정쟁을 유발한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권 발목잡기' 이미지가 덧씌워지면 오히려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계속해서 근육질 자랑하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대표 총선 인재영입 직접 챙긴다

인재위원장 맡기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인재 발굴과 영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당의 인재 발굴, 영입, 양성, 육성 등 인적 자원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상 인재위원장 및 위원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번엔 이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것이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인재위는 보안 유지 위해 위원을 따로 두지 않고 당내 핵심 인사들이 이 대표의 인재 발굴·영입 작업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당 시스템에 사무총장, 사무·조직부총장, 민주연구원, 정책위의장 등이 있는데 이

런 시스템에 의해 인재가 발탁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당 대표가 책임지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현 지도부 체제에서 인재 발굴이 이뤄지는냐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다"며 "2020년도에도 이해찬 대표 시스템하에서 영입이 이뤄졌다고 한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인재위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과거 인재위는 외부 신진 인사 영입에 주력했지만, 이번에는 당 내부 인재 및 당무에 참여한 정무 경력이 있는 외부 인사분들을 포함해 발탁할 계획"이라며 "명칭 또한 '인재영입위원회'가 아니라 '인재위원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4차산업혁명, 기후 위기, 소득격차 심화, 불평등 확대, 저출생 고령화 시대, 국토 균형발전 등 한국 사회 핵심과제에 대해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 각계인사가 민주당과 22대 국회에서 활약하고 비전을 마련할 수 있게 인재위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공청회'

외딴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지난 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7년 전인 2015년에 비해 섬의 인구는 2% 감소했지만, 먼섬의 인구는 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먼섬의 경우 교통비도 비싸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목포에서 출발하여 먼섬인 신안 거제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이상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선의 1km당 평균 비용인 362.9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좌장으로는 강제운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발제는 최효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 순으로 진행됐다.

서삼석 의원은 "먼섬의 주민은 국익을 위해 국토외곽을 수호 및 관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가거도·흑산도·울릉도·독도와 같은 먼섬의 주민은 해상 교통비를 비롯한 물류비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크게 체감되기 때문에 EU처럼 육지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브리핑

박혜자 전 국회의원 광주 서구갑 출마 선언

박혜자 전 국회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자신이 국회의원을 지냈던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원은 8일 출마의 변을 통해 "정치는 민생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이 깨지고 국민의 고통을 애통하게 여기는 정치는 어디에도 없다"며 "바른 정치를 만드는 데 다시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으로 총선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권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낸 경험, 2016년 모두 민주당을 떠날 때 당을 지킨 신의의 정치를 토대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정권교체와 호남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광주 대성초·전남여중·전남여고, 이화여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와 서울시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남도 복지여성국장을 지내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돼 교육과학기술위원 등을 역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이재명 "尹 정부, 조변석개하듯 중요 정책들 뜯어고쳐"

"제주 빼고 서울 비아냥 안 들리나" "독 되는 일 자주 벌이면 국민 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국민적 합의로 만들어 낸 중요한 정책들을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으로 조변석개하듯 뜯어고치는 일들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 여당이 좀 바쁜 것 같다. 시쳇말로 좀 당황하신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어제는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하지 않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소동이 있었다"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서울 확장 정책,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 보면 결국 '제주도를 빼고 서울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행정구역 문제를 즉흥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구 던지듯이 일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씨앗을 삶아 먹는 농부는 없다. 아무리 추위도 초가집 지붕을 뜯어 모닥불을 때는 사람들은 없다"며 "잠시 달콤할지는 몰라도 독이 되는 일들을 자주 벌이면 결국 그 역시도 국정 실패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의 엄청난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을 향해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제안한다"며 "국회도 기후 위기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만큼 활동 연장이나 상설화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